

‘숯’으로 웰빙한 우리 조상들

문명의 발달로 거의 사라져버린 숯. 다시 그 숯이 우리 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서 숯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웰빙스러운 삶을 살았던 조상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숯을 삶의 지혜로 적극 활용하여 보다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 숯을 통해 알아본다. 글 ▷ 라이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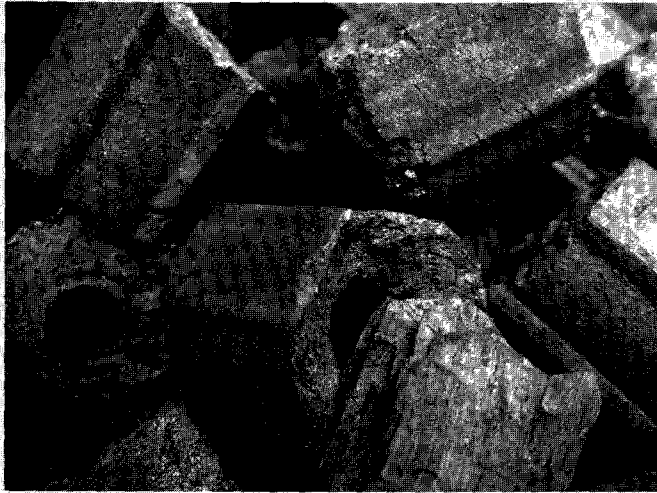
인류의 발달과 함께한 숯

요즘 웰빙 분위기에 발맞추어 검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숯, 정수, 요리, 공기정화, 습도조절 등에 요긴하게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의복, 화장품 등 의식주 생활 전반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숯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숯의 가치는 불과 몇 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인정받아왔다.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 바로 ‘숯’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숯을 사용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기원전 1,550년경 이집트에서는 이미 숯을 의학용으로 사용했으며 그리스의 명의 히포크라테스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숯을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밖에 일본과 중국의 고사찰과 고분 등에서도 숯을 사용한 흔적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우리 조상들도 숯을 풍요로운 삶의 도구로 활용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화재만 보더라도 숯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천년 세월 동안 그 완전성을 보존하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비밀 또한 숯. 조상들은 팔



만대장경을 보존하는 건물 바닥을 지을 때부터 그 기초에 다량의 숯을 섞어 만들었다. 즉 숯의 통풍·습도 조절 기능과 방충 효과를 일찍이 알아본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그 가치가 팔만대장경에 버금가는 석굴암과 다보탑의 보존 비밀도 숯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바 있다. 오랜 고분 유적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도 숯을 묻어 장례를 지낸 조상들의 풍습에 따른 것이다.

액은 막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숯의 과학성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숯을 사용한 것은 약 2,600년 전부터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숯과 관련된 풍습도 꽤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기를 낳았을 때 금줄에 숯을 끼워 문간에 달아놓는 것이다. 이는 숯이 잡귀로부터 아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숯으로 아기를 지켜내겠다는 조상들의 생각은 미신이라기보다 다분히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숯이 발산하는 음이온은 질병의 요인인 부패성 미생물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



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문에 한발 들어 딛는 곳에 솥을 묻어두는 풍습도 외출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붙어올지 모를 액운을 막자는 의미라고.

우리 조상들의 솥 활용법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다. '고인 물은 쉼는다'는 속담과 달리 우리 조상들이 썼던 우물은 쉼지 않았다. 우물을 팔 때부터 그 밑바닥에 솥을 깔아 물이 썩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 더불어 솥 속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을 물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도록 만들었다. 간장, 된장, 동치미 등을 만들 때에도 솥이 이용됐다. 발효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음식의 산패(酸敗)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솥은 만병통치약이기도 했다. 동의보감에도 유용한 약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솥. 위염, 위궤양, 장염, 중이염, 설사, 소화불량, 복통, 눈의 염증, 심한 축농증, 기관지염, 폐렴, 신장염, 소화불량, 식중독, 간염, 황달, 과음시 숙취제거, 약물중독의 해독, 변비, 숙변제거 등에 효과적이고 뱀이나 벌레에 물리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도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아이들이 배탈나면 물에 솥가루를 개어 먹였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솥가루를 먹였다.

자연에 동화·순응하며 살게 한 삶의 지혜, 솥

요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땅이 점점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 석회질 등을 뿌리며 땅의 산성화를 최대한 막아보려 애쓰는 것이 요즘 농촌의 현실인데 농사를 주로 짓던 우리 조상들은 솥가루를 뿌려 땅의 산성화를 막은 동시에 지력을 향상시켰다.

눈에 뿌려진 솥가루는 방충작용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해충들을 막아주는 등 식물

실제로 숲으로 아기를 지켜내겠다는 조상들의 생각은 미신이기보다 다분히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숲이 발산하는 음이온은 질병의 요인인 부패성 미생물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한발 들어 딛는 곳에 숲을 묻어두는 풍습도 외출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붙어올지 모를 액운을 막자는 의미라고.

들에게 더 없는 보약이 되어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광에도 숲을 놓아두었던 우리 조상들. 숲의 음이온과 습도조절 기능을 이용해 곡식의 신선도를 유지했다.

집을 지을 때도 숲이 빠질 수 없었다. 숲이 첨가된 각종 부자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최근 일이나 일찍이 숲을 이용해 집을 지었던 우리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주춧돌을 놓기 전 지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에 꼭 숲을 사용, 집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수맥을 차단할 수 있었다.

숲도 구워낸 나무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므로 조상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숲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화장용 숲은 오동나무로, 금·은 칠기 등의 연마에 이용되는 숲은 버드나무·동백나무·목련 등을 썼다.

그러나 최고 품질의 숲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참숲이었다. 흡착성, 통기성, 보수성, 배수성 등의 비밀이라 할 수 있는 내부 표면적이 1g당 약 100평, 음이온을 모두 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4,500만년 등 놀랍기 만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숲.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생활 속에서 점점 사라지긴 했지만 숲을 사용한 우리조상들의 지혜는 몇 천년이 흘렀음에도 퇴색되지 않고 오늘날 교훈이 되고 있다.

편리한 생활로 잠시 잊었던 조상들의 지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자연과 동화하고 순응하며 살아온 즉 지극히 웰빙스러운 삶을 살았던 조상들에게서 또 다른 삶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卍